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라

시편 82:1-8

1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2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셀라) 3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찌며 4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찌니라 하시는도다 5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6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너희는 범인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 같이 었더지리도다 8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 시리즈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 안에 부어질 때까지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 시대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활절, 즉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부어졌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경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경건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영적인 영역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것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분 자신의 확장이 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이 강력한 시편을 강해할 때 먼저 두 가지 측면을 보아야 하며, 그것은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요점과 연결됩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신들 가운데 서시며 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으며, 82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신론적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야 정확히 여기서 무엇이 말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신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Elohim)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라기보다 “주들”과 더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번역자들은 “주들” 대신 “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거기에는 고대 언어를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작업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곧 살펴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에서 말하는 “신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논쟁해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이 신들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명확한 답은 없지만, 우리는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신적 회의(divine council)는 아마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결코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주들”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을 때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내리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것과 악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는 명령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장차 올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이 세상, 지금의 세상,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천사 군대와 사탄의 타락한 악령들이 태초부터 계속되어 온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는 그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실 사탄은 불의한 심판을 하거나 악인에게 편파적으로 행동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에서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사들이나 신적 회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심지어 우리를 주들, 즉 엘로힘이라 부르시고, 그 과정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분 나라의 확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오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중요한 요점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 이 삶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리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의 많은 부분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 우리의 구주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삶이 지나간 후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실제로 이 우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모두 중요하며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전사한 군인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기에 더욱 특별합니다.

군인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말하듯 계속 어둠 가운데 행하며, 악한 자를 보호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과 그들의 실패에 대한 고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대표하지 못했고,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문화 전쟁과 여러 문제들에 대해 종종 늦게 반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도록 무장됩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적 회의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은 단지 하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라는 신적 회의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시며,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워온 것들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약한 자를 제거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강한 자에게 굴복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기 보존을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경건하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하늘 나라를 바라보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단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군대의 모든 병과에서 복무한 많은 친구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훌륭한 군 복무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입는 군복에 대해 같은 말을 합니다 — 미국을 대표하는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성령의 정체성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예배를 빠질 수 없으며, 이전처럼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조금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바로 교회는 나아가야 하며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아가야 하며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82편 4절: “약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오늘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에 “섬기라(serve)”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의 유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면에서 마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비슷합니다 —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역동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행동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안에 앉아서 우리끼리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악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악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동안 그들과 함께 걸어야 하며,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동안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처럼 들립니까? 제자훈련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단지 모이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제자를 보내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하는 곳이며, 그렇게 보내심 받은 자들이 또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을 때 행하셨던 것처럼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악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과 궁핍함은 단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부족하고 악인들 앞에서 무력합니다. 이 연약함과 궁핍함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두 안에 퍼져 있는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주의적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 허리케인 구호, 지진 구호, 기반 시설 건설을 돕는 일, 혹은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수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일 — 이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영원토록 다가올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악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걸으며, 성령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과 딸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주들(lords)로서, 우리의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악하고 궁핍한 자를 찾을 때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그들을 악인에게서 데려올 때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회는 나아가야 하며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교회가 실제로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교회가 영적으로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 사역의 효과를 세상의 인도주의적 선교와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깨끗한 물 공급으로 질병이 감소했는가?”라고 묻습니다. 교회는 “깨끗한 물 공급으로 그 마을이 그리스도교로 나아왔는가?”라고 묻습니다. 세상은 “재난 구호

이후 사업체들이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는가?”라고 묻습니다. 교회는 “재난 구호를 통해 제자들이 세워졌는가?”라고 묻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 세상으로 나아가 문제들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료 선교, 우물 파기,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나아가 그들을 주님께로 다시 데려오십시오 —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의 목자요 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은 중으로써, 여러분에게 **Bridge of the Valley**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해 달라고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성경공부, 금요기도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주일예배, 곧 시작될 1월의 제자훈련 시리즈 “**Experiencing God**”, 그리고 우리가 떠나게 될 선교여행들 —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 저와 함께 약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한 모든 변명을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한 주를 보낸 후 금요일에 기도하러 가기엔 너무 피곤합니다. 매주 일요일 교회에 오는 것은 너무 큰 헌신입니다. 선교를 가기 위해 직장을 설 수 없습니다 — 누가 제 생활비를 내주나요? 내 자녀들이 나의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훈련에 일주일에 6시간도 헌신할 수 없다는 변명들은 끝이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한 걸음 나아가 약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에게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일과 선교 현장에서 행하시는 일로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변화와, 약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섬기도록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사역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82편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러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은 공부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 바리새인들과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습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을 묘사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십니까?

에스겔 16장 15절: ¹⁵“그러나 네가 네 아름다움을 믿고 명성을 이용하여 창녀짓을 하며 지나가는 자들과 음행하였다.

어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창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백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는 항상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단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듣기를 구하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기회가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 기회들보다 세상적인 활동을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과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 “내가 매일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기도와 성경 읽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우리 중 누가 무슬림 형제자매들처럼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누가 유대인 형제자매들처럼 마치 생명이 달린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기까지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강한 책망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또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동안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원수에게 굴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안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죄가 그렇게 많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번아웃(burn out)”이라는 현상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이 어둠 가운데 행할 때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는 종종 회복 불가능하며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을 때 그 결과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는 아니지만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보다 약 15살 정도 많고, 항상 교회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교회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교회와 함께 어떤 전도 활동에도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20년 전에 피닉스로 이사 오기 전까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고, 예수님께 삶을 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도 모르며, 선교여행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라는 지상명령을 어떻게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 여러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편 82편이 단지 이스라엘이나 바리새인들, 혹은 어떤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책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강력한 책망인 이유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1.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2. 이전 교회에서의 경험들로 인해 번아웃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번아웃 상태입니까?
3.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섬기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 왔습니까? 아니면 단지 선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더 나아졌다고 느끼기 위해 마음의 선함으로 그렇게 해왔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단지 마음의 선함으로 그렇게 해왔다면,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 여러분은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섬겼던 모든 사람 안에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번아웃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고, 지금도 깨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영적 각성을 발견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각성을 통해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눈이 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 열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동안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많은 중요한 측면들을 다루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메모리얼 데이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섬기라고 부르시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82편의 마지막 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나라를 상속받으실 것입니다 — 정의는 하나님의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Already But Not Yet)” 시대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곧 교회 시대의 긴장은 이것입니다 — 십자가에서는 승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확장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되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섬기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